

AI융합학부 20243265 김수현 3분 스피치 원고

안녕하세요, AI융합학부 20243265 김수현 입니다. 저는 저희가 10주차에 이야기하게될 가짜 뉴스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보았습니다. ppt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이미지 정도를 담아보았습니다.

청중 여러분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한번쯤은 접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딥페이크란 딥러닝 + 페이크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등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일컫습니다.

이처럼, 현재 딥페이크 기술은 상당히 특수한 기술이 아닌, 주변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정치인들의 영상같은 정치적 선동, 사기, 음란물 제작, 가짜뉴스에 이용하여 허위정보 확산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도 합성 영상인데, 사용자가 구분을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I기반으로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들이 많아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어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기 위해서, 인텔은 96%의 정확도로 가짜 동영상을 탐지할 수 있는 페이크캐처(FakeCatcher) 기술을 개발했고, KAIST에서도 위조 사진 가려내는 딥페이크 탐지 앱(KaiCatch)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각국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이나 유포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에는 어두운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촬영하기 어려운 장면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거나, 특정 대역의 얼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는 등 잘 활용한다면 예술의 영역에 더 다양한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명암은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통제할 능력을 법적, 사회적으로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